회 원 사 동 정

(주)광명전기

종합중전기기업체로 발돋움

신원그룹 계열의 광명전기(대표: 김영택)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및 빌딩자동제어시스템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

지난 5월 16일 광명전기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기존의 수배전반사업 외에 무정전전원장치 및 빌딩자동제어시스템 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한편 앞으로 종합중전기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 분야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명전기가 이번에 새롭게 진출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컴퓨터 및 자동화설비 등의 전원공급장치로 정전압, 정주파수의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정전시에도 데이터와 설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이다.

광명전기는 또한 건물의 공기순환, 조명, 전력, 방범 등을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빌딩자동제어시스템 사업에도 새로 진출하는데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업체와 주요설비에 대한 수입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 빌딩자동제어시스템 시장규모는 2천억원 내외로 아직은 도입 초기단계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유망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광명전기는 지난해 9월 신원그룹에 인수돼 4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각종 사업영역확대를 통해 지난해 대비 46% 늘어난 6백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보성중전기(주)

아사히電機와 기술제휴 조인

보성중전기(대표:林都洙)가 아시아권 최대의 금구류 생산업체인 日本 아사히전기와 기술제휴를 맺음으로써 日本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中國 및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에 나섰다.

보성중전기 임도수사장은 지난 5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옥에서 日本 아사히전기 스즈끼사장과 기술제휴 조인식을 갖고 그동안 꾀해오던 日本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했다.

보성중전기가 이번에 기술제휴를 체결한 아사히전기는 日本은 물론 아시아권에서 최고의 금구류 전문생산업체로 알려져 있다.

보성중전기는 지난 2년전부터 금구류를 비롯한 일부제품을 日本에 수출해 왔는데 이번 아사히전기와의 기술제휴로 日本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투자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中國, 인도네시아 등의 시장에도 공동으로 진출, 아시아권시장에서의 활발한 활동도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이날 조인식에서 임도수사장은 「日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아사히전기와 기술제휴를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양사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사히전기 스즈끼사장도 「이번 보성중전기와 아사히전기의 기술제휴는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韓·日 양국의 경제협력의 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양사의 기술제휴가 韓·日 양국의 전력사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주)

PCL사업 진출

현대중공업이 독일 지멘스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국내 PLC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현대중공업은 자사 인버터 등과 함께 공장자동제어기기 분야의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최근 임원진을 독일에 파견, 지멘스사와 한국내 판매 및 PLC 기술이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지멘스사로부터 모듈타입의 중·소형 제품 2개 모델(모델명 시매틱 S7-200, S7-300)의 완제품과 시스템제품 1개 모델(모델명 시매틱 S7-400)의 부품을 수입, 내수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이 공급에 나설 S7-200은 입·출력점이 128점인 저가·소형 제품이며 S7-300은 입·출력점이 1024점 규모의 모듈러 제품이다.

또 S7-400은 분산처리 제어장치(DCS) 기능을 포괄하는 중대형 기종이다.

회 원 사 동 정

특히 이들 제품들은 프로그래밍 및 구성 소프트웨어 · SINEC 통신 · 공정제어용 인터페이스인 COROS 운전자 제어감시 시스템 · 고기능 모듈구성이 특징이다.

현대중공업은 자사 50여개 인버터 대리점을 중심으로 총 40여개의 유통대리점을 확보하는 한편 현대자동차 · 현대정공 · 현대정유 · 현대강관 등 계열사를 집중 공략해 올해 50억원, 내년에 70억원 수준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독일 지멘스는 그동안 국내시장에 현지법인을 통한 직접판매에 나서 지난해 PLC 부문에서 30억원 매출을 올렸다.

한편, 최근들어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엘리베이터의 안전과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자동문 제어전용 인버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 양산하는데 성공했다.

현대중공업 중전기부문 메커트로닉스 연구실이 3년간에 걸쳐 개발한 「엘리베이터 자동문 제어전용 인버터(모델명: HYDRIVE-D)」는 기존의 직류모터를 이용한 기계식 및 전압제어방식을 대폭 보완한 신개념의 와이어 로프 방식의 메커니즘과 제어기를 결합한 첨단시스템이다.

이 제품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앤코더(Encoder)신호를 이용하여 도어의 위치를 순간 순간 정확히 제어할 수 있으므로 가속 · 감속시운행이 부드럽고, 도어개폐시의 개폐력과 개폐시간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운행성능을 대폭 높여, 국제 규격화가 용인한 것이 시스템의 장점이다.

특히 이 제품은 최근 엘리베이터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문발차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기능을 갖추어 외국제품보다 더욱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엘리베이터(주)와 공동으로 엘리베이터 타워에 설치하여 각종 테스트와 현장적용 시험을 통해 이 시스템의 내구성과 안정성이 실증되었다고 밝혔다.

LG전선(주)

「도약 2005」 선포

국내 최대 電線제조업체인 LG전선(대표:권문구)이 오는 2005년에 매출 규모 6조원을 기록하면서 해외사업부문은 30% 이상을, 이익률은 현재 보다 2배 정도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LG전선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6월 12일 여의도트윈타워에서 임원과 사원대표, 노동조합원 등 임직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목표와 사업전개 방향을 발표하는 「도약 2005」 선포식에서 밝혔다.

이로써 LG전선은 7월까지 실행팀 구성과 함께 사업부별 과제설정을 다듬질하고 오는 8월부터는 「도약 2005」 목표에 따른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LG전선의 2005년 중 · 장기 경영목표 설정은 전선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상 사업영역확대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전선메이커로서 「21세기 세계톱10 기업」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전선제조 중심에서 제조와 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하는 턴키베이스체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LG전선이 발표한 「도약 2005」의 주요내용으로는 핵심사업인 전력 · 통신케이블 기술을 바탕으로 부품 · 설비 자재류의 엔지니어링 기술 및 시공부문을 강화, 총체적인 부문을 책임짐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알루미늄 및 고무사업은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전력 통신선 및 선로사업은 SOC(사회간접자본)투자로 인하여 시장진출이 확대되는 관련 유망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LG전선은 뿐만 아니라 전선산업의 기초 분야인 소재와 절연재료의 경우 이를 분리시켜 전문성이 강한 독립자회사로 육성시킴으로써 성장의 폭을 배가시킨다는 포부다.

세계화전략과 관련해서는 해외 지역전문가를 집중 육성하고 해외 판매법인 및 지사망을 대폭 확충, 해외사업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이미 진출해 있는 베트남과 말레이지아를 생산 거점으로 동남아, 중국, 인도지역에 중심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철저한 일본위주의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종업원 스스로 세계최고를 추구하는 자율적인 전문가로 육성하고 최고의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통제력과 주인의식을 심어준다는 것도 LG전선이 추진할 「도약 2005」 주요사업

회 원 사 동 정

가운데 하나이다.

LG전선은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정밀경영 ▲비효율적 요소를 배격하는 스피드 경영 ▲팀워크 중심으로 한 공감경영을 「도약 2005」의 실행프로그램 축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성전선(주)

中國에 합작공장

大成電線(대표:梁始伯)이 지난해 4월 中國 광시성에 합작투자한 현지법인「난닝화성유한공사」가 빠르면 6월 중순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이로써 대성전선은 90년대에 들어와 베트남 하노이에 설립한 현지공장인「VINA DAESUNG」의 투자에 이은 두 번째 해외생산라인을 구축하게 됐다.

총자본금 5백만달러 가운데 대성전선측이 약 36% 지분인 180만달러를 투자한 韓·中 합작법인「난닝화성유한공사」는 1차년도에 7백톤규모의 통신케이블을 생산할 계획으로, 올해 매출목표는 약 3백만달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성전선이 이번에 가동하는 광시성 해외법인은 먼저 진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베트남「비나대성」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뿐 아니라 기타 동남아지역의 통신망확충사업에도 공급업체로서 지명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대성전선측의 해외투자는 베트남 중국 등 2개국 모두가 사회주의 체제로 법인설립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정치, 문화적 견해 차이에서 오는 장애가 많았던 점으로 미루어 업계에서는 특유의 뚝심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창립 제22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이사장:洪世基)는 지난 6월8일, 강동구 명일동 본사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2주년 기념식을 갖고 그동안 회사발전에 기여했거나 효행이 뛰어난 한만봉씨 등 49명을 표창했다.

홍세기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우리 公社가 오늘이 있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기안전의 주역으로서 불철주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3천여 전기안전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며「세계일류의 21세기 전기안전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오늘을 제2의 창업의 계기로 삼아 역량있고 생동감있는 조직과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洪이사장은 창립일인 7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24시간 전기안전 비상체제요원들과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만사에 투철한 직업관과 국가관, 노익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74년 설립, '90년 특수공익법인으로 재설립됐으며,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LG산전(주)

첨단 디지털 보호계전기 개발

LG産電(대표:李鍾秀)이 전력계통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디지털보호계전기 7종류를 3년 동안 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끝에 개발에 성공했다.

보호계전기란 단락이나 지락사고시 선로와 부하단의 제품보호를 위해 송전선로를 차단해주는 계기로 선로보호에 필수적인 장비이다. 현재 국내시장(100억원)의 50%에 이르는 디지털보호계전기의 시장은 전량 외국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LG산전의 이번 디지털보호계전기의 개발은 연간 50억원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97년도 중전기기분야의 유통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중전기기 분야의 기술을 한단계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개발한 디지털보호계전기는 기존의 아날로그 보호계전기와는 달리 정밀도 및 프로그램 입력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아날로그방식은 검출량의 정확한 세팅(Setting)이 어려워 오차율이 ±5%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에 개발한 디지털방식은 액정표시판에 나타난 수치를 보고 초보자도 쉽게 세팅할 수 있어 오차율 0%로 정확한 세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번 제품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채택하여 기존제품에 비하여 외형크기를 30% 축소하여 소형화를 실현 최적의 배전반설계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제품교환시 이탈착이 손쉬운 인출형 구조로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동작부에 내장된 자동감시기능 및 이상상태 표시기능으로 사고의 발생 및 원인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초보자라도 간단한 프로그램입력으로 고장유무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LG산전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보호계전기 시장에서 금년도 10억원의 매출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속적인 제품개발은 물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LG産電은 배전선로 정전사고 즉시 무정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25.8kV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를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그동안 수입제품에 의존해 온 국내시장에서 매년 2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3년부터 총 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한 이 제품은 또 국내 최초로 한국전기연구소(KERI) 및 세계적인 공인시험기관인 네덜란드의 KEMA로부터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제품 성능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 획득은 물론 향후 수출전망도 밝게 해주었다.

특히 KEMA 개발시험에서는 자동부하전환개폐기의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는 開閉특성, 短絡특성, 단시간전류특성 등에 대해 선진제품과 대등한 수준으로 합격했다.

현재 30억원 규모인 국내시장은 외국제품의 직수입과 도입부품에 의한 제작·판매로 인한 귀중한 외화손실과 원할치 않은 제품공급, 신속하지 못한 A/S로 국내 사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으나 이번 제품개발 성공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게 되었다.

자동부하전환개폐기는 주로 공공기관, 병원, 전산센터, 수처리시설 등 안정적이고 무정전의 전력공급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는 이중전원 공급설비로 일시 정전에 의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LG산전이 이번에 개발한 자동부하전환개폐기는 옥내 배전반형태의 설치와 옥외설치는 물론 기존 제품에 비해 크기가 작아 설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효과적인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게끔 설계됐으며, 전력수용가에서 발생하는 전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수용가 사고가 한전 배전계통 사고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정전사고 발생시 예비전력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0.2초 이내이며, 완벽한 절연효과가 있는 SF_6가스를 사용하여 안전성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명을 반영구화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LG산전은 이 제품을 5월부터 본격 양산하여 금년에 약 100대를 판매, 2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며, 향후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중요시하는 시장상황에 따라 매년 50% 이상의 매출신장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특성에 맞는 제품개발과 함께 관련 전력기기와 연계한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대한전기학회

7월22일부터 하계 학술대회

대한전기학회(회장:유석구)는 오는 7월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용평리조트(대관령)에서 「96년도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산업계에서 182편의 논문 등 기술개발 결과를 발표하며, 학계에서 496편의 연구논문 등 총 678편의 논문들이 발표, 토론될 예정이다.

이는 학회 창립이래 최대이며 국내학회중 단일 행사로는 최대 규모라 할 만큼 많은 논문으로서 매년 하계대회마다 발표 논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본 학술대회기간에 선진 외국학회와의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일본전기학회, 중국전기공정학회 대표단이 방한하여 특별강연과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학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이다.